



# 오리에 있어서 질병의 의미는?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조류질병학과 모인필 교수

지난 2년간 국내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하지 않았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직 중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병동육, 신선육을 수출할 수 없다. 이것 또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오리 산업에 있어서는 다행스러운 일일 수 있다. 더욱이 올 여름을 지나면서 오리육에 대한 국민의 사랑이 남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오리 산업은 지금 이 기회에 산업을 튼튼하고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올해 3년째 본인은 국내 오리도축장에 대한 HACCP 수준운영평가를 8개 소비자 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양한 업체를 방문하면서 여러 오리에 대한 선전문구를 만나게 된다. 그 중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생각난다. “오리는 유향을 먹어도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질병에 매우 강한 동물이다” 건강식으로서의 오리고기를 강조하고자 한 선전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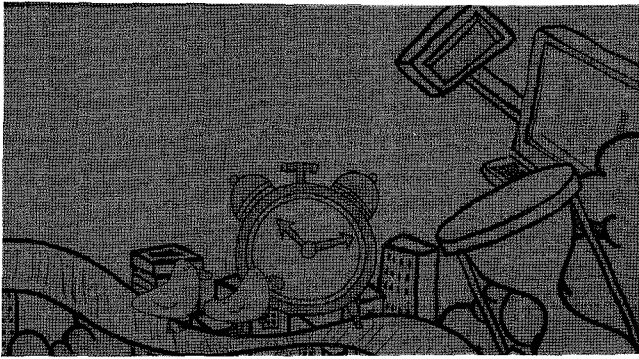
## 과연 오리는 타 축종에 비하여 질병에 강한 것인가?

사람을 포함한 어느 동물도 다른 동물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질병에 강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단지 감염되거나 피해를 주는 질병의 종류가 다를 뿐이다. 즉, 질병에 강한 것이 아니고 질병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오리도 타 축종과 마찬가지로 건강하고 안전한 오리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좋은 사료와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을 하여야 하며 철저한 차단방역과 때가 되면 오리 질병에 대한 적절한 백신접종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타 축종과 마찬가지로 오리도 다양한 병에 걸리게 되며 이로 인한 폐사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그러면 왜 우리는 오리가 질병에 강하다고 생각하는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산업화에 따른 다양한 질병의 발생 여건이 아직 숙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오리산업은 타 축종에 비하여 최근에 비약적으로 발전함으로써 비슷한 산업인 양계와는 달리 농장의 대규모, 밀집사육이 아직도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과거의 양계산업과 양돈산업을 뒤돌아 보면 산업이 대규모화, 밀집화, 단지화가 되면서 다양한 질병이 발생되었던 것



을 기억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 되는 오리산업에도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질병이 발생 될 소지가 많다. 특히 최근의 오리농장을 보면 현대적 시설의 농장 신축과 증축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시설이 열악한 농장도 속속 오리농장으로 편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이 열악하면 질병 발생율은 더욱 높아지고 동일한 질병이라도 더욱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사육환경의 오리농가에서 발생하였는지를 회상해 보면 금방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오리가 질병에 강하다는 인식은 이제 오리 사육농가나 관련종사자는 버려야 할 것이다. 오히려 오리고기가 대중화되고 산업화가 급진적으로 진행됨으로서 다양한 질병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깊게 가져 오리질병의 차단과 조기발견에 많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로 오리에서 특징적으로 과거부터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하여 간략히 이야기 하고자 한다. 오리의 질병은 크게 전염성 질병과 비전염성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오리산업이 규모화, 밀집화되면서 가장 크게 우려해야 할 질병이 바로 전염성 질병이다. 밀집화되면서 오리는 스트레

스로 인하여 면역체계가 약해져 과거보다 쉽게 질병에 감염될 수 있으며 더 빨리 다른 오리에게 전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소규모로 사육을 하였을 때는 피해가 미미하여 지나쳐갈 수 있었지만 대규모화 되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인식하게 되고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질병으로서 아직 국내에서는 발생이 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리 바이러스성 장염(Duck plague, Duck Virus Enteritis)이 있다. 오리 바이러스성 장염은 닭에 있어서 뉴캐슬병과 같은 바이러스성 전염성 질병으로서 성오리에서의 높은 폐사율을 특징으로 한다.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어 있어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100% 방어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무서운 질병이다. 뉴캐슬병도 오래전에 백신이 개발되어 전국적으로 접종이 되어 왔지만 아직도 발생을 하는 것을 보면 백신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오리 바이러스성 장염은 주로 성오리에 감염되지만 어린 오리에서도 발병이 가능하며 주요 임상증상으로는 급작스런 폐사로서 부검을 하였을 때 병변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이다. 급사가 아닌 경우에는 닭의 뉴캐슬병과 마찬가지로 녹색변 혹은 혈변을 보이며 장을 포함하여 내부 장기에서 쉽게 출혈을 관찰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종오리에서 사독백신을 함으로서 모체이행항체를 충분히 내려 주고 사육 중에 생독백신을 하여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최선이다. 물론 백신접종을 하여도 소독, 스트레스 완화 등 차단방역과 사육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다음으로는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오리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병



## 축산수첩

오리에 있어서 질병의 의미는?

으로 오리간염(Duck virus hepatitis: DVH)과 오리패혈증(리에델라증, Pasteurella anatipesifer infection)이 있다. 이 두 가지 전염성질병은 대부분 오리사육농가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필요가 없겠지만 아직도 많은 농가에서 기본 방역에 실패함으로써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학문의 습득에는 왕도가 없다는 격언처럼 질병의 방역에도 왕도가 없으며 방역의 기본으로 돌아가 실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오리간염(DVH)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4주령 이후의 오리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바이러스성 전염성질병이다. DVH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린 병아리는 반드시 충분한 모체이행항체를 어미로부터 받아야 한다. 따라서 어미는 사육과정 중에 충분한 항체를 이행시키기 위하여 사독 혹은 생독백신을 반드시 접종받아야 한다. 좋은 종오리로부터 생산된 어린 오리를 구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농가에서는 오리간염과 오리패혈증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관찰된 임상증상과 부검소견을 바탕으로 그 동안의 경험을 대입을 하니 쉽게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가검물이 본 충북대학교 조류질병학실에도 여러 번 의뢰가 된 바 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 등 다양한 실험실적 검사방법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실험실로 직접 의뢰하는 것이 농장 자체내에서 진단을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임상증상들이 전형적이지 않고 혼합감염 형태로 진행되는 전염성질병이 많아 확진을 하기 쉽지 않다.

그 밖의 오리 질병으로 대장균증, 파스투렐라증, 살모넬

라 증 등 다양한 전염성 질병이 있지만 지면관계상 다음 기회에 언급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비전염성 질병인 독소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오리는 다양한 종류의 독소에 대하여 다른 축종이나 닭에 비하여 감수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리에 투여하는 사료는 다양한 원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곰팡이가 자랄 수 있어 쉽게 곰팡이 독소에 오염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료곡물을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배를 통하여 외국에서 수입하는 국내환경에서는 곰팡이 독소의 오염율이 훨씬 높을 수 있으며 곰팡이 독소에 민감한 오리는 특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곰팡이 독소에 노출이 되어도 실험실적 검사가 쉽지 않아 정확한 진단을 하기 어려워 실제 농가에서의 피해를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사육환경이 열악하여 사료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지 않을 때에는 더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곰팡이 독소 중 아스퍼질라스에 의하여 생산되는 아플라독소는 적은 용량에도 높은 치사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오리 사육농가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로 한다.

앞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오리가 다른 축종에 비하여 특별히 질병에 강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빠른 대규모화, 단지화 및 밀집화에 따른 질병의 다양화 및 토착화가 우려됨으로 이에 대한 빠른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에서 벗어나 건강식으로서 오랜만의 호황을 맞고 있는 오리 산업은 지금 이 시점에 질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역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한다. 그 길만이 앞으로 계속 오리산업이 건강식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